

“단 한 방울의 기름도 바다에 흘리지 않는다”

美 마이애미의 경쟁력은

마이애미=이규연 기자 letter@joongang.co.kr | 제 65 호

중앙SUNDAY

“두 미국(Two Americas).” 미국에서 양극화의 “두 미국(Two Americas).” 미국에서 양극화의 심각성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만큼 이 표현에 어울리는 지역도 드물다. 주민의 40%가량이 빈곤선을 헤매면서도 한 채에 수천만 달러 하는 고급주택 단지가 곳곳에 존재한다. 스타 문화와 범죄 그림자가 공존한다. 극단적인 모습에도

마이애미는 세계 최고의 해양레저도시라는 명성을 수십 년간 유지해 왔다. 수치로도 드러난다. 동력선은 6 만 2000 여 척, 대형 마리나는 20 개에 이른다. 해양산업으로 200 억 달러(약 20 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22 만 명의 고용 효과도 낸다. 2~3 일 보트로 마이애미 해안 일대를 돌며 성공 비결을 탐사했다. | 20080608 입력

즐기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달 25 일 레게음악축제가 열린 미국 마이애미 해안에서 관광객들이 요트를

< 걸려 18 년 데 짓는 하나>

마이애미비치 남쪽에 있는 선셋하버 마리나. 100 여 척의 요트가 정박한 사설 복합레저시설이다. ‘dock master’로 불리는 관리인 그레이 헨트리스가 나와 시설을 안내한다. 그는 “이곳의 자랑거리는 100% 완벽한 청결 유지”라고 자신 있게 말하며 ‘클린 마리나 프로그램’ 책자·비디오를 가져온다. 관리자와 선주·선원이 지켜야 할 환경지침이 빼곡히 나와 있다. “키포인트는 요트의 하수와 엔진용 기름을 빼내거나 집어넣을 때 단 한 방울도 바다에 흘려 보내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심각성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만큼 이 표현에 어울리는 지역도 드물다. 주민의 40%가량이 빈곤선을 헤매면서도 한 채에 수천만 달러 하는 고급주택 단지가 곳곳에 존재한다. 스타 문화와 범죄 그림자가 공존한다. 극단적인 모습에도 마이애미는 세계 최고의 해양레저도시라는 명성을 수십 년간 유지해 왔다. 수치로도 드러난다. 동력선은 6 만 2000 여 척, 대형

마리나는 20 개에 이른다. 해양산업으로 200 억 달러(약 20 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22 만 명의 고용 효과도 낸다. 2~3 일 보트로 마이애미 해안 일대를 돌며 성공 비결을 탐사했다.

< 걸려 18 년 데 짓는 하나 >

마이애미비치 남쪽에 있는 선셋하버 마리나. 100 여 척의 요트가 정박한 사설 복합레저시설이다. ‘dock master’로 불리는 관리인 글레이 헌트리스가 나와 시설을 안내한다. 그는 “이곳의 자랑거리는 100% 완벽한 청결 유지”라고 자신 있게 말하며 ‘클린 마리나 프로그램’ 책자·비디오를 가져온다. 관리자와 선주·선원이 지켜야 할 환경지침이 빼곡히 나와 있다. “키폰트는 요트의 하수와 엔진용 기름을 빼내거나 집어넣을 때 단 한 방울도 바다에 흘러 보내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마이애미 해안에서 수질오염을 측정하는 감시선

부두 곳곳에는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돼 있다. 이용자는 시설에 관을 연결해 버리는 물을 하수펌프장으로 보낸다. 기름을 주입할 때도 반드시 관리인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한다. 무엇보다 부두시설이 오염원을 관리하기 편하게 디자인돼 있다. 마이애미시 소속 관리인인 스티븐 보그너는 “마이애미의 환경관리 프로그램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간간하다. 요즘 유럽과 중동에서 관심이 많다”고 소개했다. 중·대형 마리나 하나를 지으려면 보통 18 년이 걸린다. 공사 과정에서 이것저것 철저하게 따져 보기 때문이다.

오염시키면 수백만원 벌금 내야

선체에 ‘DFRM’이라고 적힌 보트들이 해변을 돌아다닌다. 해양감시당국의 약자. 보트 위에서 두세 명이 바닷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해양오염을 감시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벌칙 규정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다. 쓰레기를 던지거나 기름을 유출하면 2500~1 만 달러의 벌금을 문다. 마이애미에서 보트비디오 사업을 해온 문명근(48)씨는 “주정부의 환경관리 지침이 있지만 민간 관리자가 지침보다 엄격하게 수질 관리를 할 정도로 민관 협조가 잘 된다”고 말한다.



스타아일랜드에 있는 농구스타 샤킬 오닐의 별장

그는 “한국에서 마리나를 건설할 때 환경대책을 꼼꼼히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고급 레저시설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마이애미의 환경 기술·노하우를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90 년 ‘클린 마린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시는

과학자·민간단체·요트 사용자 등과 함께 세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조지 부시 대통령의 동생인 제프 부시가 주지사로 있을 때 ‘플로리다 클린 마리나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주 전체에 퍼졌다. 당시 시 공무원이었던 케빈 코테는 “환경관리가 청결을 낳고 청결이 부자와 고급 요트를 불러들이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됐다”며 “영국 같은 해양 선진국에서도 플로리다의 프로그램을 배우려 한다”고 말했다.

갈 곳 잃은 생물 위해 인공 산호 심어

돌고래 한 마리가 접근하자 보트 안내인은 속도를 늦춘다. 늪이 주변을 땀뚱다 사라지자 다시 속도를 낸다. 바다·해안 곳곳에는 바다생물 표지가 있다. 특히 국제 보호동물인 매너티(Manatee) 보호 프로그램이 작동 중인 곳이 많다. 젓을 먹이는 모양새가 사람을 닮아 ‘인어(人魚)’로 불리는 포유류(바다소)다. 늪이 자주 출몰하는 지점에 식별 요령·보호 요령·취지 등이 적혀 있다.

시는 80년 ‘인공 산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해안에 별장·고층빌딩·레저시설 등을 지으면서 생물 서식처가 파괴되자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에서다. 해양 바닥에 인공 산호를 심어 놓아 서식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의외의 성과도 얻었다고 한다. 시 공무원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벤 모스트코프는 “인공 산호 주변의 해양생물을 보기 위해 스킨스쿠버들이 몰려들면서 다이빙산업이 커졌다”고 말했다.

샤킬 오닐 등 소유한 스타 별장촌

마이애미 앞바다의 여러 섬에는 고급 별장단지가 들어서 있다. ‘스타 아일랜드’도 이 중 하나다. 유명 영화배우·운동선수의 별장이 모여 있는 곳이다. 현지 안내인의 입에서 실베스터 스탤론과 엘리자베스 테일러 등 스타의 이름이 줄줄 나온다. 수천만 달러짜리 주택에 선체가 100 피트(약 30m)를 넘는 메가 요트는 기본이다. 섬 중간에 농구 스타 샤킬 오닐의 별장이 보인다. 계류장 난간에 그의 마스코트 인형이 붙어 있다.

스타 아일랜드보다 훨씬 나중에 ‘피시 아일랜드’가 생겼다. 단독주택인 스타 아일랜드와 달리 3~6 층의 콘도단지다. 선체가 50m에 이르는 초대형 요트가 군데군데 보인다. 콘도 안쪽에는 골프장이 있다. 섬 밖으로 나갈 때는 개인 요트를 이용한다. 현지 안내인은 “한국인 소유자들도 있다”면서 “쾌적한 환경이 계속 부자를 불러들이는 것 같다”고 말한다.

강렬한 태양·해변과 어울리는건축양식

비치 주변의 아르데코(Art Deco)지구. 낮은 건물 수백 채가 몰려 있다. 대부분 호텔·식당이다. 아르데코는 프랑스어로 장식미술을 뜻한다. 20년대 유행한 건축·디자인 양식이다. 곡선을 중시한 아르누보와 달리 직선적이고 실용적이다. TV 시리즈·영화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린 ‘마이애미 두 형사’의 배경이 이곳이다. 강렬한 태양 때문인지 건물들은 묘한 빛을 내고 있다. 현지 유학생 윤형표(30)씨는 “이곳 건물은 철저한 보호를 받는다”며 “아르데코 코드가 맞지 않는 건물은 절대 들어서지 못한다”고 말한다.

KOTRA 마이애미 무역관의 고광욱 관장은 “마이애미의 친환경 개발 사례나 은퇴자 유치 전략은 한국에서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인 클린 마리나 기술은 국내 해양산업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양레저 개발의 성공조건을 찾는 짧은 여행을 끝내며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깨끗한 환경’이 필요조건이 아닐까.